



[뉴스]
경업 안한다더니
오렌지 판 MBK
푸르덴셜 입질
02



Economy

코스피 2232.96 (-5.42)	코스닥 687.61 (+1.02)
금리 (연간 기준) 1.28 (-0.02)	환율 (원/달러) 1182.80 (+3.30) (13일)

주주친화 배당 2배 (1300억) 재고 줄여 현금유지

데이터로 보는 10대 기업

LG전자 (中)

내수 침체 속 위기 대응력 우수
재고자산 919억 줄여 건전성 유지
투자 활동에 8977억 현금 유출
법인세 年 700억... 나라곳간 기여
디지털세 강화로 부담 증가 우려도

LG전자는 실적부문에서 지난해 다소 부진한 한해였다. TV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스마트폰 영역에서는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다만 현금흐름을 통해 본 LG전자의 위기 대응력은 우수했다는 평가다. 현금 유입은 부진했지만 그만큼 재고자산을 줄이면서 현금을 지켜냈다. 그러면서도 배당은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했고, 투자도 줄이지 않았다.

13일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은 313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219억원)보다 77.9% 줄어 들었다. 영업을 열심히 했지만 막대한 손에 쥔 현금은 없었다는 얘기다.

◆ 현금흐름 부진 속 건전성 집중

지난해 현금흐름의 부진은 비단 LG전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내수 시장이 침체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을 통해 LG전자와 같은 국내 대기업이 현금 창출력이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LG전자의 현금흐름이 악화된 이유는 매출채권(외상매출금)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에는 긍정적인 투자환경에 힘입어 매출채권을 오히려 감소시켰지만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8546억원어치의 매출채권이 발생했다. 매출채권은 거래처 경영상황이 어려워져 어음이나 외상결제를 할 때 늘어난다.

이 가운데 LG전자는 재고자산을 줄이며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것을 간신히 막아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LG전자는 919억원어치의 재고자산을 줄였다.

장기차입금 상환을 통한 자금 건전

성 확보도 이어졌다. 같은 기간 장기차입금이 1조600억원 증가했지만 7830억 원어치의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다. 전년과 비교해 차입금 증가 폭은 줄었고, 상환액은 늘었다.

그렇다고 투자활동에 소홀하지 않았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투자 활동으로 인해 약 8977억원의 현금 유출이 발생했지만 이 중 90% 이상은 유·무형 리스자산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LG전자는 공장, 특허권 등 사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무형자산은 2476억원 늘었고, 유형, 리스자산은 5768억원 늘었다.

◆ 역대 최대 배당금

이 가운데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친화 행보는 이어가고 있다. 현금흐름이 악화된 가운데 배당금은 전년보다 2배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

LG전자는 매년 배당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도 연간 기준 1359억원을 배당금 지급에 사용했다. 전년(728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배당률은 8.0%에서 15.0%로 높아졌다.

배당과 투자에 상당한 비용을 들였지만 2018년 기준 예금잔액은 1조1903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2016년 수준은 유지한 셈이다.

또 LG전자는 연간 700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내고 있다. 지난 2018년 LG전자는 658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고, 2017년에는 1037억원을 냈다. 그만큼 나라 곳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디지털세가 강화되면서 LG전자의 법인세 부담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IT 기업의 법인세가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당이나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비용은 회사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LG전자 현금 흐름표와 이익잉여금처분액)

(단위: 천원, 개별기준)

현금흐름표	2019.3Q 누적	2018.3Q 누적	2017.3Q 누적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13,348,000	1,421,968,000	805,160,000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89,172,000	-1,969,357,000	-1,042,600,00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41,125,000	548,247,000	503,144,000

이익잉여금처분액	2018	2017	2016
이익잉여금처분액	5,278,269,000	5,427,814,000	4,683,708,000
이익준비금	13,591,000	7,288,000	7,288,000
배당금	135,909,000	72,885,000	72,885,000
[우선주배당금]	13,745,000	7,731,000	7,731,000
[보통주배당금]	122,164,000	65,154,000	65,154,000
배당률(중간배당포함)	15.00%	8.00%	8.00%

롯데의 눈물... 쇼핑 매장 30% 접는다

핵심역량 활용 고강도 체질 개선
비효율 점포 줄여 영업손실 축소

롯데쇼핑이 매장 30%를 접는다. 강희태 롯데쇼핑 대표이사는 13일 실적 발표 후 가진 콘퍼런스콜에서 비효율적 점포 정리를 핵심으로 하는 '2020년 운영 전략'과 함께 당사의 핵심 역량을 활용해 체질 개선을 시도하는 '미래 사업 청사진'을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강 대표는 이날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현재 롯데쇼핑의 최우선 과제다. 고객, 직원, 주주들의 공감을 얻는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롯데쇼핑은 지난 해 12월 단행한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사업부제'를 1인 CEO 체제 하의 통합 법인(HQ) 구조로 전환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력을 확보했다. 과거에는 법인 내 각 사업부가 개별 대표 체제로 운영되면서 독립적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 회사의 자원을 법인 전체의 성과를 위해 효율



롯데백화점 본점

/롯데쇼핑

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올해부터는 새롭게 신설한 HQ가 통합적 의사결정을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각 사업부는 '상품 개발 및 영업 활동에 집중'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2020년 운영 전략'의 핵심은 강도 높은 다운사이징(Downsizing)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롯데쇼핑 내 백화점, 마트, 슈퍼, 록스 등 총 700여 개 점포 중 약 30%에 달하는 200여 개 비효율 점포를 정리할 예정이다. 자산을 효율적으로 경량화하고 영업손실 규모를 축

소, 재무건전성과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 같은 운영 전략과 함께 롯데쇼핑이 가진 핵심 역량인 '공간, MD, 데이터'를 활용해 체질 개선을 진행하는 미래 사업 운영 방향도 제시했다. 330만5785㎡(100만 평) 규모의 많은 매장 공간을 비롯, 지난 40여년 간 축적된 MD 노하우, 그리고 방대한 고객 데이터(3900만명)를 다각도로 활용해 기존의 '유통 회사'에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서비스 회사'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또한, 롯데쇼핑은 총 100만 평의 오피스 공간을 리셋(Reset)하고 업태의 경계를 넘나드는 매장 개편으로 사업부 간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경쟁력이 낮은 중소형 백화점의 식품 매장은 신선식품 경쟁력을 갖춘 슈퍼로 대체하고, 마트의 패션 존(Fashion Zone)은 다양한 브랜드에 대한 바이잉 파워(Buying Power)를 갖고 있는 백화점 패션 바이어가 기획 진행하는 등 기존 매장 운영 개념에서 벗어나 융합의 공간을 구현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대통령과 머리 맞댄 재계 총수들

코로나19 극복... 정부 지원·규제완화 한 뜻

이재용·최태원·구광모 등 참석

재계 총수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댔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주요 그룹 총수들을 불러모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대표와 이재현 CJ 회장 등 오너와 현대자동차 윤여철 부회장과 롯데지주 황각규 부회장 등 최고위급 경영자가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도 함께했다.

재계는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19와 관련해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박용만 회장은 재계를 대표해 중국에서 서둘러 정상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추후 책임이나 행정상 불이익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며 조치를 설명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더 나아가 이번 사태에 한해 정책 감사를 폐지하는 수준으로 과격적으로 운영해야 정책 개발과 집행이 더 활발해지고 사태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업체에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한 데에 감사를 표하며, 더 적극적으로 정책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유연근로 등 입법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금융지원과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체생산품에 빠른 인증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

지를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세금 납부기한 연장, 항공과 해운 등 예상 피해에 선제적인 대응도 약속했다.

이어서 기업도 설비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해달라며, 정부도 민간과 민자, 공공 3대 분야에서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재용 부회장은 '프로포폴 의혹'이 불거진 후 첫 공식 석상에서였다. 별다른 발언 없이 자리를 떠났다.

재계 13위에 불과한 CJ그룹이 초청된 배경에도 주목이 쏠렸다. 청와대는 CJ가 중국 내 사업규모나 업종 특성상 코로나19와 연관이 깊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최근 아카데미상 4관왕을 차지한 영화 '기생충' 투자사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했다.

/김재용기자 juk@